

삼국통일전쟁의 軍事史的 연구와 역사적 합의*

한준수**

-
- I. 머리말
 - II. 군사사를 통한 역사의 이해
 - III. 삼국통일전쟁의 군사사적 의의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고찰은 7세기 후반 삼국의 격변과 삼국통일전쟁이 지니는 군사사적 연구에 대한 의미를 개관한 것이다. 일반적 시각으로서 軍事나 軍事史는 무엇이며, 군사사적 고찰을 통한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폈으며,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서 삼국통일전쟁에 대한 군사사적 고찰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삼국통일전쟁과 나당전쟁의 승자로서 신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신라의 국력, 신라의 육군과 수군, 그리고 전략과 전술 등에 대하여 접근하였고, 이를 통해 신라가 역사의 승자로서 당당히 자리할 수 있었음을 논증하였다. 더하여 현재의 군사사 연구가 지니는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균형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흔히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한다. 우리의 역사 역시 예외는 아니었으며, 『삼국사기』 등에 전하는 수많은 전쟁 관련 기록들은 그것을 증명해 준다. 그러한 점에서 7세기 동아시아는 전쟁의 세기였으며, 우리는 그러한 전쟁의 당사자로서 역사의 중심에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수전쟁, 여당전쟁, 삼국통일전쟁, 나당전쟁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전쟁들이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일찍부터 고찰이 진행되어 왔으며 역사적 의의나 한계가 살펴졌다.

한국 고대사에 있어 가장 큰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삼국통일전쟁에 대해서도 많은 고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민족문화의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역사적 의의가 제시되었으며, 역사학계는 물론 일반 대중도 공감하는 통설적 견해로 자리하고 있다.

* 이 글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4년 군사사연구총서 용역사업-7세기 후반 삼국의 격변과 신라의 삼국통일’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하지만 그러한 역사적 인식과는 별개로 그 고찰 과정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존재한다. 삼국 통일전쟁이 오늘날의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전쟁사를 중심으로 한 군사사 시각의 접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7세기 한반도의 삼국과 동아시아 세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해서는 정밀한 군사사적 고찰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군사사적 고찰이 지니는 근본적 의의라 할 수 있다. 고찰을 통해 군사사에 대한 이해 확대는 물론 삼국통일전쟁과 삼국통일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에 대한 이해가 한 단계 깊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주제어 : 삼국통일전쟁, 나당동맹, 나당전쟁, 고구려, 백제

I. 머리말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표현될 만큼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어 왔다. 우리의 역사 역시 예외가 아니었기에 그러한 표현이 군사사 연구자는 물론 일반 대중 역시 당연히 공감하는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에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분쟁이나 국지전과 더불어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첨단 무기의 성능과 위용은 군사와 전쟁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촉진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와 같은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군사사에 대한 관심은 역사학의 다른 어느 분야보다 집중되고 있으며 시사성을 띠고 있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와 전쟁에 대한 단순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전문적인 군사사 연구와 차원을 달리 한다는 점에서 일반 독자가 군사사 영역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데 한계가 되고 있다. 이는 특정 군사 활동이나 전쟁과 관련된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한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나 맥락을 토대로 하여 전개되는 군사사적 고찰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군사사 연구의 심화 못지않게 군사사 영역의 대중화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며 현재가 바로 그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깊이 있고 이해하기 쉬운 군사사 연구가 많은 이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다가가야 하는 것이다.

본 고찰은 그와 같은 군사사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 상황을 염두하고 우리 역사에서 군사적 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고대사의 한 시기, 즉 7세기 후반에 진행된 삼국의 격변과 삼국 통일전쟁이 지니는 군사사적 활동의 의미를 개관한 것이다. 일반적 시각으로서 軍事나 軍事史는 무엇이며, 군사사적 고찰을 통한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서 삼국통일전쟁에 대한 군사사적 고찰의 의미와 이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군사사를 통한 역사의 이해

미국의 문명사학자 월 듀런트(1885~1981)에 따르면 “전쟁은 인간 역사의 상수로서 문명이 나 민주주의가 나타나도 약화되지 않았다. 기록된 역사의 기간인 지난 3,421년 동안 오직 268년만 전쟁이 없었다.”고 한다.¹⁾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1928~2016)는 “1945년에서 1990년의 전체 2,340주 동안 지구상에 전쟁이 전혀 없었던 기간은 도합 3주에 불과했다.”고 한다.²⁾ 월 듀런트나 앨빈 토플러의 분석은 인간과 전쟁이 그만큼 불가분의 관계임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사에서는 어떠하였을까? 『삼국사기』에서 확인되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 간 전투는 약 600여 년 동안 275회에 이르며, 주변 국가까지 포함할 경우 460회에 이른다.³⁾ 우리 역시 전쟁의 역사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현상의 바탕에는 인간의 투쟁적 본성이 위치하며 더하여 각 국가 지도자들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책이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쟁으로 상징되는 군사력의 사용에 국가 이익의 관점이 철저히 작용했기 때문이다.

프로이센의 군인·전략가였던 클라우제비츠(1780~1831)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계속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⁴⁾ 전쟁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아닌가 싶다. 이는 외교 등 다른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군사력의 사용으로서 얻어지는 잠재적인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면 전쟁이 국가의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뜻이다. 즉 전쟁을 통해 얻어지는 국익이 희생보다 크다면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실행된다는 뜻이다. 그만큼 전쟁의 원인도 다양하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사를 살펴보면 클라우제비츠의 시각이 가장 잘 투영된 시기는 7세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고대 동아시아의 8세기가 ‘전염병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7세기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만큼 단연코 ‘전쟁의 시대’였다.

오늘날의 세계 대전에 비견될 만큼 많은 국가와 민족이 연계된 대규모의 전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여수전쟁(612) 여당전쟁(645), 삼국통일전쟁(660), 나당전쟁(670)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 속에는 고구려·백제·신라 사이에 전개된 수많은 전투는 물론 주변 세력과 벌였던 살수대첩, 안시성전투, 백강전투, 매소성전투, 기벌포전투 등 우리에게 친숙한 전투도 담겨 있다. 여기에 당과 吐蕃 사이의 수십 년에 걸친 전쟁까지⁵⁾ 포함하면 이

1) 월 듀런트·아리엘 듀런트 공저, 안인희 역, 2014, 141쪽. (원저 『The lessons of History』, 1968).

2) 앨빈 토플러 지음, 이규행 감역, 1994, 28쪽.

3) 김영수, 2006, 7쪽에 서술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통계 관련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한 민족(韓民族)의 전투 및 전쟁 관련 기록은 國防軍史研究所, 1994, 401~425쪽, 부록1. 연표 및 온창일, 2013, 1054~1055쪽 부록 참조.

4) 클라우제비츠 저, 김홍철 역, 1990, 70~71쪽.

5) 당과 토번 사이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대비천(大非川) 전투(670), 승풍령(承風嶺) 전투(678),

시기의 상황은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따라서 7세기의 우리 역사나 동아시아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쟁사를 중심으로 한 군사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군사사에 대한 이해가 지니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사사는 무엇이며, 군사사에 대한 이해는 왜 필요한 것인가? 軍事는 사전적으로 군대나 전쟁 등과 관련된 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군사사란 군대나 전쟁에 대한 역사라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군사사라 표현할 경우 전쟁사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양자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전쟁사는 군사사의 한 영역에 해당할 뿐이다. 다만 전쟁사가 지니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군사사 영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무기, 군제, 군역, 군수, 전략·전술 등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군사사란 전쟁 등 군사 관련 활동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 체제 전반에 대한 인식들을 완성하는 작업이라 표현할 수 있다. 각국의 지배 세력, 경제 체제, 인구 규모, 병력 동원, 군사 조직, 교통로, 대외 교섭 등 다양한 분야와 역학 관계를 조망하여 전체적인 시대상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전쟁 중인 사회에 대한 연구로서 군사사의 기능이라 하겠다.⁶⁾ 즉 군사사는 전쟁이나 무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던 국가나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군사사는 사회사와 구별되지 않으며, 군사사는 사회사의 중요한 일부이다.”라는 존 터레인(John Terraine)의 지적이 주목된다.⁷⁾

이와 같은 군사사 시각을 토대로 하여 7세기의 동아시아 세계를 바라보면 당시 각국이 생존을 위하여 자신들의 國運을 걸고 얼마나 치열하게 군사 활동을 전개하였는지 그 생생한 모습은 물론 인과 관계까지 확인할 수 있다.

7세기 중반 신라의 전략 변화는 군사사 고찰의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진흥왕대 전성기를 누렸던 신라는 이후 고구려와 백제의 압박 속에 위기에 내몰리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결정적 위기는 대야성 전투(642)였다. 당시 신라의 실질적인 집권자였던 김춘추는 백제군의 공격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인 대야성을 상실함은 물론 성주였던 사위 김품석과 딸 고타소랑까지 잃었다.⁸⁾

김춘추에게는 개인적 시련의 시기였지만 동시에 국가적 위기의 상황이었기에 슬픔조차 느낄 수 없었다. 위기 극복을 위하여 청병하고자 고구려를 방문하였으나(642), 신라가 진흥왕대 점령한 영토의 반환을 요구받으며 오히려 위기에 처했다가 겨우 돌아올 수 있었다.⁹⁾ 이후

인식가(寅識迦) 전투(689), 소라한산(素羅汗山) 전투(692) 등이 전개되었으며, 이들 대규모의 전투에서 당은 모두 대패하며 국가적 위기를 맞았는데, 대종(代宗) 2년(763)에 이르러서는 수도 장안(長安)이 토번에 점령당하기도 하였다.

6) 스태크(J.C.A. Stagg) 저, 임지현 外 역, 1992, 51쪽에서 “군사사는 대국적 관점에서 전쟁 중인 사회에 대한 연구로서 재정의 되어야 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

7) 류한수, 2008, 292쪽 주)19.

8)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善德王 11년(642) 8월.

9)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일본도 방문하였지만¹⁰⁾ 백제와 친연성이 매우 강한 나라였기에 뜻한 바를 이룰 수 없었다.

결국 신라에게 있어 남은 마지막 선택지는 당(唐)이었다. 김춘추는 3남 文王과 함께 對唐使行에 나섰다. 당시 대당사행은 수도인 경주를 출발하여 당항성을 거쳐 장안까지 편도 90일이 소요되는 장기간의 여정이었으며,¹¹⁾ 거기에 더하여 고구려군의 감시도 피해야만 하는 생명을 담보로 했던 험난한 행로였다. 다행히 김춘추는 당 태종의 환대를 받으며 나당동맹을 결성할 수 있었고, 귀국 후 唐制에 기반한 제도 정비를 신라 사회 전반에 걸쳐 추진하였다. 6세기 지증왕~법흥왕대 진행된 신라의 사회적 변혁에 버금가는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군사 분야의 혁신은 신라군의 근본적인 변혁으로 이어졌고 이는 삼국통일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토대가 되었다.

신라의 군사 전략을 비롯한 군제나 전술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여·제의 군사적 압박을 힘겹게 막아내던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려는 태세로의 전환이었다. 정치적인 수세 전쟁에서 적극적인 공세 전쟁으로의 전환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¹²⁾

그러한 변화는 신라군이 당의 行軍, 三軍, 總管 등을 도입하여 운용한 모습에서 나타나며,¹³⁾ 그러한 제도들이 신라에 제도적으로 정착된 사실이 사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형식적인 차용 단계를 넘어 적극적인 수용이자 능동적인 대응으로서, 이러한 변화들은 나당동맹(648) 성립부터 백제공략(660) 시점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12년’은 신라에게 있어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인고의 세월이자 변혁의 시기였다. 이러한 변혁을 통해 신라군은 삼국통일전쟁 과정에서 당과 대등한 존재로서 동맹의 중심이 되어 당당히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더라면” 하는 푸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삼국통일의 결과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던 만주와 요동 지역을 상실하게 되었으니 그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는 표현으로서 당연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쉬움 못지않게 우리 스스로 모순된 인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신라의 국가 공인 청소년 조직으로서 삼국통일의 원동력이자 수많은 인재를 양성했던 화랑도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들의 성장과 활동의 배경이었던 신라와 그 국가적 역량은 그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균형 있는 역사 인식을 위해서는 현재의 시각이 아닌 당시의 상황에서 그들의 행

10) 『일본서기』 권25, 孝德天皇 大和 3年(647).

11) 신라 왕경에서 당은포를 거쳐 황해를 횡단한 후 등주에서 장안까지 걸리는 시간은 90일이었으므로, 왕복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180일이었다(權惠永, 1997, 214-220쪽).

12) 양투안 양리 조미니 저, 이내주 역, 1999, 19쪽에서 자국의 영토 방어를 위하여 “적군이 국경선으로 공격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에 먼저 공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무렵 신라의 군사 전략이 큰 틀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고 할 수 있다.

13) 이상훈, 2018.

동을 고찰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삼국은 자신들의 생존 영역을 구축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웠다. 혼인 동맹을 맺을 정도로 친밀함을 보이다가도 상대방을 절멸시키려는 수준의 공격을 행하기도 했다. 갈등의 긍정적 효과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출되던 대립 양상은 삼국이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삼국통일전쟁의 결과로 동족 의식이 형성되었다는 견해를 참고하면,¹⁴⁾ 이 무렵에 동족의식의 이전 단계로서 강한 동질감이 형성되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즉 7세기 삼국 간 군사적 대립의 격화는 자신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서로가 공존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전쟁이라는 갈등 상황 속에서 서로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형성해 가고 있었다고 하겠다. 삼국은 서로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상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더불어 부정적 인식을 함께 정립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 서로가 닮아가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느슨하지만 혈연적·문화적 친연성을 토대로 상호 공통되는 속성을 형성하며 삼국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군사사 연구는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표면적으로는 전투나 전쟁의 전개 양상을 고찰 대상으로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전투나 전쟁을 거치며 새롭게 생성되던 지배 질서의 변동이나 사회 의식의 변화 등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여 제시함으로써 당대의 시대상과 역사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Ⅲ. 삼국통일전쟁의 군사사적 의의

한국 고대사에 있어 역사적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삼국통일이라는 시각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다. 단순히 규모가 거대한 전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사에 있어 역사적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삼국통일전쟁은 한국 고대사의 핵심적 주제였고 주된 연구 대상이었다. 그 결과 삼국통일전쟁이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신라사를 중심으로 많은 고찰이 이루어졌다. 신라의 통일이 불완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족의 형성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으며,¹⁵⁾ 이후 이 시기에 형성된 사회와 문화가 장차 한국사의 주류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민족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녔다는 견해로 다시 강조된 후,¹⁶⁾ 현재 통설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라의 삼국통일을 보는 일반적 시각에 대하여 최근 새로운 견해가 제기되었다. 기존의 견해와 달리 삼국통일이라는 관점은 재고되어야 하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이 아니라 백제 故地를 통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백제통합론’이 그것이다.¹⁷⁾ 당연히 이에

14) 노태돈, 2009, 297-299쪽.

15) 이기백, 1967, 90쪽 ; 동저, 1986, 改訂版, 87쪽.

16) 李基白·李基東 共著, 1982, 『韓國史講座』I [古代篇], 一潮閣, 301쪽.

17) 김영하, 1988 ; 동저, 1998 ; 동저, 2007, 238-267쪽.

대한 반론으로서 신라의 통합 영역이 상당 부분 고구려 고지이고, 오늘날 한국과 한국인의 틀을 형성하였으므로 역사적 의의가 크다며 기존 통설의 논리를 강화한 ‘삼국통일론’이 제시되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¹⁸⁾

논쟁의 핵심은 문무왕이 설인귀에게 보낸 「답설인귀서」의 ‘平壤已南 百濟土地’의¹⁹⁾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형식상 평양이남과 백제토지인지 평양이남의 백제토지인지 의미의 구분이지만 해석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백제통합론은 “평양 이남의 백제 토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삼국통일론은 “평양 이남과 백제 토지”라는 기존 통설²⁰⁾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 속에 삼국통일론을 부정하며 백제통합론을 지지하는 견해가 파생되었고,²¹⁾ 다시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이어지며,²²⁾ 논쟁이 계속되는 형국이다.²³⁾ 여기에 신라통일론 담론을 일본 식민주의 사관의 소산으로 이해하거나,²⁴⁾ 삼국통일전쟁을 7세기 중·후반 동북아시아 전쟁으로 부르는 견해도 제시되었다.²⁵⁾ 신라통일론 또는 백제통합론으로는 신라의 통일(통합)을 둘러싼 당·신라·백제·고구려, 왜·말갈·거란 등 여러 나라들이 참여한 전쟁의 성격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미 삼국통일전쟁이나 나당전쟁을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접근한 견해도 있었던 바,²⁶⁾ 시야의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자칫 우리 역사를 우리의 시각이 아닌 외부자 시각에서만 바라보게 될 경우 한국사를 타자화하는 단점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일단 주요 논쟁 가운데 하나로 자리하고 있는데, 논쟁 그 자체는 연구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 학술적 의도와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파생되는 영향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백제통합론의 경우 삼국통일의 불완전성이나 일통삼한의식의 성립 시점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지만,²⁷⁾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삼국통일’을 부정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부분은 약간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신라가 삼국통일전쟁을 전개할 당시 고구려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경우²⁸⁾ 자칫 동북 3성 지역의 역사적 연고를 주장하는 중국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중화 패권주의 사관에 본의 아니게 연계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학계 일부에서는 당 태종과 김춘추 사이에 체결

18) 노태돈, 2011, 29-345쪽 ; 동저, 2009, 앞의 책, 30-32쪽.

19)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文武王 11년(671).

20) 李丙燾, 1977, 134쪽.

21) 윤경진, 2016.

22) 기경량, 2019.

23) 김수태, 2014 ; 윤진석, 2020에서 사료 해석을 매개로 전개되는 백제통합론이나 삼국통일론에 대한 자세한 논지 및 비판이 정밀하게 이루어져 있다.

24) 윤선태, 2007.

25) 이재환, 2019.

26) 서영교, 2006.

27) 윤진석, 2020, 138쪽.

28) 「답설인귀서」에 “평양양국 평양이남 백제토지(平定兩國 平壤已南 百濟土地)”라 하며 이미 고구려도 포함되어 있어 동의하기는 힘들 것 같다.

된 나당 밀약[平壤已南 百濟土地]에 대하여 문무왕이 백제고지 점령을 변호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²⁹⁾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논리가 백제·고구려의 멸망은 당이 주도했으며, 신라는 부수적인 존재라는 가벼운 인식이므로,³⁰⁾ 정밀한 분석과 대응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쟁의 근원이 되는 나당동맹의 성격은 물론, 성립과 전개, 결과 등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고찰과 더불어 삼국통일을 관념적으로 상징하는 삼한일통의식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재정립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주지하다시피 나당동맹은 오늘날의 한미동맹처럼 사상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이념동맹이 아니라 여·제 정복 후 그 점령지 분할에 합의한 단순한 영토동맹이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문헌에 기록된 ‘평양’은 단순히 상징적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 아니라, 나당 간 영토 분할의 경계선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당시 신라와 당 모두 평양이 고구려의 수도로서 백제와의 영토 경계가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표현의 의미는 평양 이남의 고구려 영토와 더불어 백제 영토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일단 초기의 선행 연구들은 민족형성, 국가발달, 대외관계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³¹⁾ 한민족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었고, 중앙집권적 영역국가체제의 확립에 영향을 주었으며, 사대교린이라는 전통적인 한반도 왕조의 대외정책의 기본 틀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견해에서 아쉬운 부분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군사사 시각의 고찰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사, 경제사, 사상사 등과 달리 군사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광복 직후 역사 연구의 인적·물적 토대가 빈약했던 현실에서 기인한다. 다행히 세월이 흐르며 우리의 연구 역량이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군사사 영역의 연구도 심화되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된 것은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삼국통일전쟁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를 보다 정밀하게 완결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사사 영역의 고찰을 중심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전략·전술, 군제(軍制), 병역(兵役) 등 제반 분야의 접근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정제된 군사사 시각의 견해를 정립하여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국통일전쟁의 군사사적 의의는 바로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삼국통일전쟁의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 신라의 국가적 역량, 구체적으로는 군사적 역량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비록 신라가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당에 청병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로 나당동맹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당이 신라를 동맹 상대로 인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냉혹한

29) 拜根興, 2002, 84~86쪽 ; 韓昇, 2003, 145~146쪽.

30) 이기천, 2020, 230쪽.

31) 노태돈, 2009, 297~304쪽.

국제 관계의 속성을 고려할 때 당이 단순히 신라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었다고 생각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제의 배후에 위치한 신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전략적 으로 의미가 있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당이 동맹 상대국으로서 신라가 지닌 군사적 역 량을 어느 정도 인정할만한 수준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실제로 당 태종이 644년 고구려 를 침공할 당시 신라 등이 그에 협력한 바 있는데,³²⁾ 아마도 그러한 사실들은 나당동맹의 결 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한 점에서 나당동맹이 신라에 게만 시혜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삼국통일전쟁에서 있어 신라의 주체적 역량을 확인시켜 주는 첫 단추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술했듯이 나당동맹은 여제 정복 후 그 점령지 분할에 합의한 단순한 영토 동맹이었기에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의 대상이 아니었다. 나당연합군은 처음부터 내부 균열의 가능성이 있 었다.³³⁾ 당은 여제 정벌 후 당이 백제 지역에 웅진도독부를, 고구려 지역에 안동도호부를 각각 설치하였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동맹국인 신라에 계림대도독부를 설치하고 문무왕 을 계림주대도독에 임명하는 등³⁴⁾ 패권주의 행태를 보였다. 신라가 결코 동의한 적 없는 오 만함의 극치였다.

다행히도 문무왕과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 지휘부는 당의 패권주의 행태와 침략적 속성을 이미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와 당의 협 력을 통한 군사적 효능감은 여제 정복 단계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신라군이 여제 정복 이후 압록강 건너의 皆敦壤에서 당군을 선제공격하며³⁵⁾ 나당 전쟁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압록강 유역을 나당의 경계로 확장해 보려던 신라의 의도는 없었는지 궁금해진다.

신라는 동맹국 당에 대하여 절대 의존적이지 않고 일관되게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백제 의 장군 계백이 활약했던 황산벌전투로 인하여 신라군이 당군과의 합류 시간에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였을 때, 신구도행군대총관이었던 蘇定方이 그것을 핑계 삼아 신라군의 督軍 김 문영을 처형하겠다고 하자, 이에 분노한 김유신이 “먼저 당군과 결전한 후에 백제를 깨뜨리 겠다.”고 하며³⁶⁾ 강력히 대응하니 소정방이 물러섰던 일화가 그것을 증명해 준다. 삼국통일 전쟁의 주역으로서 주체적인 자세를 절대 잃지 않았던 당당한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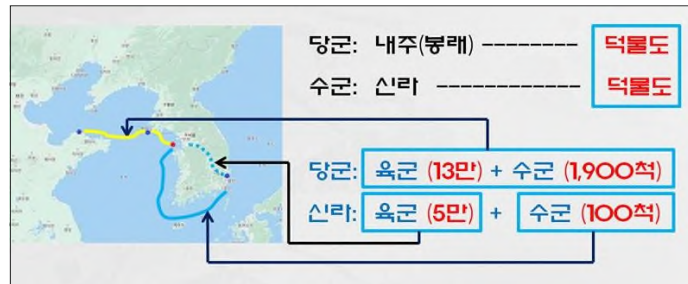
32) 『新唐書』 권220, 東夷傳 高麗, “又發契丹·奚·新羅·百濟諸君長兵悉會.”

33) 임기환, 2006, 82쪽.

34)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3년(663) 4월.

35)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10년(670) 3월.

36)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太宗王 7년(660), 7월 9일, “必先與唐軍決戰 然後破百濟 ….”



[그림 1] 나당연합군 병력 규모와 이동 경로

당시 신라군의 역할에 대하여 당군의 군량 조달을 담당하며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다는 일부 견해들이 있으나, 이는 부분적인 사료 해석에서 생겨난 오류일 뿐이다. 오히려 신라군이 대규모 병력 운용에 더하여 병참 능력까지도 완비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사료에서 확인되는 5만 精兵 기록은 당시에 정예화되었던 신라의 군사력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³⁷⁾

신라 수군의 역량에 대한 시각도 비슷하다. 육군을 보조하거나 보급 함대로써 수송 역할에 한정되었다는 견해들이 그것인데 기록을 토대로 할 때 그러한 견해에 동의하기는 힘들다. 백제공략 당시 나당 수군의 상륙작전을 예로 들 수 있다. 서해의 경우 섬이 많고 조류가 빠르며 조수간만의 차도 커서 항해나 정박이 쉽지 않은 지역인데,³⁸⁾ 당군이 계절풍, 해류, 조수, 沙柱 등 백제 해역의 정확한 해양 정보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이러한 작전 영역은 신라 수군이 백제 영해에 대한 탐색전을 은밀히 전개하며 해로와 수심 등의 항해 정보를 획득하였을 것이고, 나당연합작전에 제한적으로 공유하며 활용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³⁹⁾ 이미 진평왕대 船府署가 설치되어⁴⁰⁾ 선박, 조선술, 항해술, 수병 등에 대한 관리를 주 업무로 했음을 생각할 때, 수군의 군사 행정을 장악하고 수군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므로, 이 시기 신라의 해양력이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데 전혀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나당전쟁 시기에는 더욱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당군의 기본적인 침공 전략이 수륙병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던 것은, 한반도 연안의 제해권을 신라 수군이 철저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⁴¹⁾ 기벌포해전의 전초전 성격을 지니는 천성전투에서⁴²⁾ 설인귀가 이끄는 당 수군을 격파하고 병선 40척을 포획했던 것도⁴³⁾

37)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太宗王 7년(660) 6월 21일, “王喜不自勝 又命太子與大將軍庾信將軍品日欽春【春或作純】等 率精兵五萬 應之 王次今突城.”

38) 이상훈, 2012, 169쪽.

39) 한준수, 2021, 1쪽.

40)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眞平王 5년(583).

41) 권창혁, 2023, 282쪽.

42) 이상훈, 2012, 213쪽.

그러한 신라 수군의 역량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신라군의 위상이나 역할을 축소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들은 단편적 시각의 접근으로서 다면적 고찰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로 삼국통일전쟁이 새로운 군사 전략의 등장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이다.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침공하기 위해 활용했던 항로는 기존의 서해 연안 항로가 아닌 서해 중부 횡단 항로였다. 당은 13만 명의 병력과 병선 1,900척을 투입하였는데,⁴⁴⁾ 조선술과 항해술의 발전에 따른 수군력의 활용이었지만⁴⁵⁾ 새로운 형태의 전략이었던 것은 분명했다. 백제가 전쟁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국가가 붕괴되는 단계로 진입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 충격이 상당히 컸음을 보여준다. 당시 나당 연합군은 서해의 덕물도(덕적도)에서 합류하였는데, 신라의 태자(문무왕)가 병선 100척을 이끌고 합류하였다는 기록도 확인되므로⁴⁶⁾ 덕물도가 삼국통일전쟁의 서막이 열린 곳을 알 수 있다. 덕물도는 나당 연합군의 단순한 합류 지점을 넘어 백제 공략에 있어 나당 연합군의 전진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 신라군의 전략과 전술도 의미있는 부분이다. 삼국통일전쟁의 상징적인 주역으로서 김유신의 역할을 통해 실제 전장에서 전개된 신라군의 전략이나 전술에 대해서도 고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만전술, 삼도 진군 전략, 첩보전, 돌격전술 등 다양한 군사적 궤적이 기록에서 확인되므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와 관련하여 신라군이 여제 공략 과정에서 보여준 한산주 일대의 군사 거점이나 관방 체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삼국통일전쟁의 교두보로서 서해의 덕물도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당 전쟁기에 당군이 신라군의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했던 것도 그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신라가 낭비성(포천 반월산성)을 확보한 후 구축한 임진강~한탄강 일대의 방어선이 고구려의 돌파를 차단했던 것처럼, 이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⁴⁷⁾ 신라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후반에 영토를 확장하면서 전국적으로 광역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⁴⁸⁾ 그러한 요소들이 축적되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삼국통일 이후 한산주가 가장 많은 영현을 거느린 광역행정구역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일정 부분 그러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더하여 백제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도 심화된 고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나당동맹 성립 이후 652년부터 백제와 당의 외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자 백제가 급변하던 국제정세에 대

4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文武王 15년(675) 9월.

44)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太宗王 7년(667) 3월 및 『삼국유사』 권1 기이1, 太宗春秋公.

45) 『資治通鑑』 卷181, 煬皇帝上之下大業 8年 6月 己未에 “高麗諸城各堅守不下右翊衛大將軍來護兒帥江淮水軍舳艫數百裏浮海先進入自浪水去平壤六十裏與高麗相遇進擊大破之.” 라 하여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 당시 水軍 대장 來護兒가 江淮의 수군을 이끌고 참전했던 사실에서 唐 이전에 이미 체계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6)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太宗王 7년(667) 5월 21일.

47) 윤성호, 2019, 186쪽.

48) 이상훈, 2015, 103쪽.

응하고자 외교관계를 재정립하며 국가의 생존을 위해 도모했던 외교 전략은⁴⁹⁾ 삼국통일전쟁의 일부분으로서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비록 백제가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국가가 소멸되기는 하였지만, 계백으로 상징되는 백제의 군사적 대응 역시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백제부흥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흑치상지나 백제군의 전투력은 백제의 관방 체계나 방어 전술 등을 고찰하는 데 있어 충분히 의미를 지닌다. 더하여 백강이나 탄현 등 주요 전투가 벌어진 지역에 대한 위치 비정 역시 정밀하게 재조명할 수 있으며,⁵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주류성 또한 그러한 작업 과정의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⁵¹⁾ 백제의 방어 체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고 하겠다.

셋째로 나당전쟁 당시의 戰域 역시 관방 체계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이다. 주요 전투가 한강 하류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도권 지역만을 주된 전장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료에서는 다른 면도 살펴지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조에 전하는 신라의 23개 軍號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3군호는 신라의 23개 군단을 지칭하는데, 漢山州를 군단 명칭으로 하는 부대와 牛首州를 군단 명칭으로 하는 부대가 확인되기 때문이다.⁵²⁾ 한산주는 수도권 지역, 우수주는 춘천 지역에 해당하므로 당시 전역이 한강 유역과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전투가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나당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신라에게 있어 한산주는 서부 전선의 중심축이었고, 우수주는 동부 전선의 중심축으로서 전진 기지이자 교두보였던 것이다.⁵³⁾ 신라군이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수주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 결과라 하겠다.⁵⁴⁾

강원 지역의 ‘화천-춘천-홍천-원주-제천’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는 시대를 초월하여 군사적으로 중요한 기동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6세기 후반 고구려의 남진 경로나 7세기 전반 신라의 북진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⁵⁾ 그러한 모습은 고려 후기에도 살펴볼 수 있는데, 몽고의 압박을 받은 거란군이 고려로 침입하여 원주-춘천을 거쳐 제천까지 남하하자 장군 김취려가 이끄는 고려군이 그들을 격파했던 박달재 전투(1217)가 그것이다.⁵⁶⁾ 6.25전쟁 당시에도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전개할 때 선택했던 주요 침공로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⁵⁷⁾

49) 박종욱, 2022, 212-221쪽.

50) 이재준, 2023.

51) 이재준, 2019.

52) 『삼국사기』 권40, 잡지9, 凡軍號에 따르면 牛首州誓(672), 牛首州闕幢(672), 牛首州三千幢(672), 牛首停(673)이 확인된다.

53) 한준수, 2015, 296쪽.

54) 이영수, 2023, 223-239쪽.

55) 장창은, 2014, 297쪽, 〈지도 12〉 및 312쪽 〈지도 13〉.

56) 『고려사』 世家 권22, 高宗 4년(1217), 7월 5일(陰) 庚辰. “崔元世·金就礪追丹兵于忠·原二州間 戰于麥谷 追至朴達峴 大敗之 賊踰大關嶺而遁.”

57) 유제춘, 2010, 216쪽.

이렇듯 춘천 지역은 강원 영서 지역의 거점인 동시에 태백산맥 서쪽을 지나는 嶺西路의 길목으로서, 일찍이 고대부터 군사적 요충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단 영서로를 통해 평시의 국가 기간 교통망이 전시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 잘 알려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전역이 중요한 요충지나 길목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고찰이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로와 밀접한 지역에 창건된 사찰에 대해서도 확장된 분석이 가능하다. 사찰의 경우 승려와 불교 철학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사상사적 접근이 주된 형태이지만, 호국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모습이나 영향을 고려하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 보인다.

신라 화엄종의 開祖인 義湘이 문무왕의 뜻을 받들어 창건했다는 부석사는 상징적인 사례가 된다.⁵⁸⁾ 부석사의 창건 시기는 문무왕 16년(676) 2월로서 매소성 전투(675, 9)와 기벌포 전투(676, 11) 사이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나당전쟁이 종전을 향해 나아가고는 있었지만, 당이 침략 야욕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상태였다.⁵⁹⁾ 비록 신라가 매소성 전투에서 당군을 격퇴함으로써 전쟁의 승기를 잡았지만, 여전히 깊게 드리운 전운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한 시점에 즉령 교통로 주변에 부석사가 창건되었으니 종교적 측면에 더하여 나당전쟁의 군사적 측면에서도 주목될 수밖에 없다.⁶⁰⁾

나당전쟁 당시 소백산맥이 신라가 구축한 5개의 대당 방어선 가운데 제3차 방어선이었던 점에서,⁶¹⁾ 관방 유적과 함께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의상이 入唐敕法 중 귀국하게 된 배경이 당의 침공 계획을 신라에 신속히 알리고자 했던 것이므로⁶²⁾ 설득력은 충분할 것이다. 주요 교통로의 거점과 주변 지역의 사찰 창건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이다.

넷째로 무기체계에 대한 고찰 심화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고대의 전쟁을 현대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상대에게 중대한 타격을 주기 위한 고위력 병기의 개발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사력 강화의 핵심으로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신라는 법흥왕 4년(517) 병부설치를⁶³⁾ 통해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화시키는 군사 제도의 정비를 단행한 바 있다.⁶⁴⁾ 신라 최초의 행정 관부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그 기관이 군사를 담당하는 조직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이른 시기부터 ‘軍國政事’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보면,⁶⁵⁾ 군사가 국가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역이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한 신라 병부에 弩 관련 관원이 존재하고 있어 흥미롭다. 弩舍知와 弩幢이 그것인

58)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文武王 16년(676) 2월.

59) 당 高宗은 의봉 3년(678) 시중 장문관(張文瓘)이 원정 중단을 건의하자 비로소 전쟁을 그만두었다.

60) 정성권, 2023, 79쪽.

61) 이상훈, 2016, 86-87쪽.

62) 『삼국유사』 권4, 의해5, 義相傳敎.

63)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法興王 4년(517) 夏 4월, “始置兵部.”

64) 노중국, 1987, 49쪽 ; 이문기, 1997, 316쪽 ; 정덕기, 2018, 62-76쪽.

65)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南解次次雄 7년(10), 秋 7월, “以脫解爲大輔委以軍國政事.”

데,⁶⁶⁾ 노를 담당하는 사지와 당⁶⁷⁾이라는 의미이다. 문무왕대 노 제작 전문 기술자인 仇珍川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신라의 노 제작 기술이 상당히 뛰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 당 고종까지 나서 그것을 얻고자 상당한 압박을 하였음에도 구진천이 끝내 굴하지 않았던 모습은 그것을 증명한다.⁶⁸⁾ 그러한 노를 담당하는 노당이 문무왕 11년(671), 노사지가 문무왕 12년(672) 각각 설치되었다고 하니, 그 시기가 나당전쟁이 한창 격화되던 무렵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진흥왕 19년(558) 나마 신득의 砲弩 제작 기록을⁶⁹⁾ 토대로 진평왕대 이미 노당 군단이 설치되었다는 견해도 있으므로⁷⁰⁾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 여기에는 삼국통일전쟁의 출발점이었던 나당동맹의 불완전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더하여 새로운 병법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문무왕이 영묘사 앞길에 행차하여 군대를 사열하고, 아찬 薛秀眞의 六陣兵法을 관람하였다고 한다.⁷¹⁾ 육진 병법은 당 李靖이 고안한 陳法으로 중앙의 1개 부대를 중심으로 주변의 5개 부대가 둘러싸는 방식인데 고난도의 훈련이 실행되어야만 가능했다. 이는 신라가 당 병법의 도입은 물론 그것을 통한 숙련된 군사력의 유지에도 적극적이었음을 나타낸다. 신라 병제의 혁신이라 할 수 있겠다.⁷²⁾

다섯째로 군사적 영역에 있어 여제 유민의 역할에 대한 이해 심화이다. 이미 여제 유민에 대해서는 많은 고찰이 진행되었으며, 주로 유민 통합 내지는 지배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들과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언급되는 보덕국은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느낌이다. 군사사 측면이라 하여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부흥운동과는 별개로 나당전쟁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³⁾ 신라 내 고구려 유민의 존재가 당의 신라 침공 명분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⁷⁴⁾ 그들의 동향이 그리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단순히 신라의 포용력 시각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온전한 이해가 아닐 듯하다.⁷⁵⁾ 신라의 군사 조직 가운데 구서당이나 삼무당⁷⁶⁾이 여제유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심화

66)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 상, 병부, “弩舍知一人 文武王十二年 始置 景德王改爲司兵 惠恭王復稱弩舍知 位自舍知至大舍爲之 … 弩幢一人 文武王十一年置 景德王改爲小司兵 惠恭王復故 位與史同.”

67) 당(幢)은 3가지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사찰의 당간지주(幢竿支柱)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깃발’을 의미하며, 둘째는 군사 조직으로서 신라의 “○○당”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관료(관원)를 의미하는데, 병부의 노당(弩幢) 및 고관가전(古官家典)의 당(幢)이 그것이다. 따라서 신라에서 노당은 군사조직(군단) 명칭인 동시에 병부 소속 관료라는 2가지 의미를 지닌다.

68)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9년(669) 冬.

69)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眞興王 19년(558).

70) 신범규, 2024, 31-32쪽.

7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文武王 14년(674) 9월.

72) 서영교, 2002, 52-55쪽.

73)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 10年 3月. 신라 사찬 설오유(薛烏儒)와 함께 고구려 태대형 고연무(高延武)가 개둔양에서 각각 정병 1만여 명을 이끌고 당 말갈병을 공격했던 것은 신라의 여·제 유민 또는 부흥군과의 연합 전략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74) 植田喜兵成智, 2022, 244-246쪽; 신은이, 2018, 4쪽.

된 언급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삼국통일 후 신라의 북계에 대한 고찰도 심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덕왕대 당이 패강 유역을 신라의 영토로 공인한 기록을 근거로 하여⁷⁵⁾ 신라가 성덕왕대 이르러서야 패강 유역에 대하여 지배를 처음 실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편이다. 신라의 지방군 10정 가운데 남천정(이천)과 골내근정(여주) 주둔지를 예로 들며 “10정 설치의 북방 한계선은 ‘여주-이천’선에 머물러 있었으니, 이는 한강 이북지역의 치안 및 편제에 대한 신라의 관심이 미비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고 하거나,⁷⁶⁾ 신라가 백제 고지에 만족하고 더 이상 북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문왕대 9주를 설치할 때에도 임진강선을 넘지 못했다고⁷⁹⁾ 한 견해들이 그에 해당한다.

하지만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조나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을 토대로 할 때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오히려 그러한 견해와 달리 신라는 북쪽 경계나 영역의 변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고구려 옛 영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문왕 10년(690) 창설된 삼변수당이 그것으로서 한산변·우수변·하서변이라 하여 북쪽 3개 주에 국경 수비를 위하여 창설한 군단이 있었다.⁸⁰⁾ 지방 군단 10정과는 별개로 북방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신문왕대 패강 유역에 대해 지배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기록도 있어 주목할 만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평양 기록에 “당 고종이 이적을 보내 신라와 함께 협공하여 고구려를 멸하고 안동도호부를 두어 좌위위대장군 설인귀에게 군사 2만을 거느리고 진무하게 하였는데, 뒤에 당나라 군사가 떠나자 그 땅이 모두 신라로 들어갔다.”고 한다.⁸¹⁾ 나당전쟁에서 패배한 당군이 철수한 이후 신라가 평양 일대까지 진출하며 이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적어도 신라가 단순히 백제 통합만을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고구려 옛 영역까지도 확보하려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신라는 자신의 현실적 역량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다.⁸²⁾

이러한 신라의 모습은 만주와 요동을 포함한 동북 3성 지역의 연고권을 주장하는 중화 패권주의 사관에 대한 역사적, 논리적 대응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75) 백제 유민이 고구려 유민 보다 차별을 했을 것으로 이해하는 일반적 시각에 대하여 사료 비판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있음을 지적한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 최희준, 2020, 94~98쪽.

76) 한준수, 2018.

77)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聖德王 34년(735).

78) 이기동, 1976, 4쪽 ; 동저, 1984, 211쪽 ; 강봉룡, 1997, 206쪽 주)30.

79) 김중복, 2010, 93쪽.

80)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三邊守幢【一云邊守】.

8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1, 平安道 平壤府 建置沿革, “唐高宗遣李勣與新羅夾攻滅之 置安東都護府 以左威衛大將軍薛仁貴總兵二萬以鎮撫之 後唐兵既去 其地皆入於新羅.”

82) 이상훈, 2012, 40쪽.

이처럼 삼국통일전쟁에 대한 군사사적 연구는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다. 신라가 나당전쟁의 전개에 있어 중심 국가로서 당과 협력하면서도 절대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하였던 사실에서 국가적, 군사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대적 특징으로서 새로운 방어 체계와 전략·전술·병법의 도입과 신무기의 개발도 확인할 수 있어 군사사 영역의 심화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여제 영역에 대한 관심과 실효적 지배 노력은 신라가 삼국과 삼국민을 동질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통합에 노력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고찰이 미진하다는 점도 커다란 과제이다. 첫째, 삼국통일전쟁기 군사 제도에 대한 고찰이 신라 중고기보다 소략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전시 상황인 만큼 사료 내용이 제도의 변화상보다 전쟁의 양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을⁸³⁾ 감안하더라도 미흡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신라의 23개 군단 가운데 고찰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점은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둘째, 군관조직에 대한 부분도 심화되어야 할 영역이다. 『삼국사기』 직관지에 기록된 31개 군관 중 검토가 진행된 것은 장군 등 몇몇에 불과한 상태이다. 상당히 미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연구 못지않게 일치된 견해를 도출해 내는 것도 과제라 할 수 있다. 장군직의 경우만 해도 평시의 상설직인지 아니면 전시에 임명되는 임시직인지 견해가 나뉘어 있는데, 연구의 다양성만으로 인식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단순히 지휘관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력 운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진전이 필요하다.

셋째, 개념용어에 대한 합일된 견해가 필요하다. 기존에 여수전쟁, 여당전쟁, 나당전쟁 등의 용어가 최근 고수전쟁, 고당전쟁, 신당전쟁 등으로 불리고 있다. 연구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군사사 연구 토대의 정밀한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합의된 견해가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부흥운동과 복국운동, 부흥운동과 부흥전쟁 등도 그 연장선상에서 꼭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⁸⁴⁾

넷째, 군진의학에 대해서도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군진의학이란 전쟁이 발발한 후 군대 내 대규모로 발생하는 각종 부상자와 질병에 걸린 자를 관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⁸⁵⁾ 정리하면 군대 내의 의학이라 표현할 수 있다.⁸⁶⁾ 삼국통일전쟁 과정에서 동아시아 각 지역의 군대가 집결하여 한반도에서 장기간의 전쟁을 치름으로써 풍토병이 교환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결과 한반도에서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었으며,⁸⁷⁾ 전황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육효빈 신도비」에 따르면 670~673년 사이 한반도 서북 지역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음을 보여준다.⁸⁸⁾ 육효빈과 함께 파견된 친구 王守義가 전염병으로 사망했는데, 이때의 전염병은 그 여파가 커

83) 신범규, 2024, 14쪽.

84) 김강훈, 2022, 14-17쪽에서 용어에 대한 제 견해를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85) 이현숙, 2003, 12쪽.

86) 오준호, 2014, 58쪽.

87) 여인석 외 지음, 2018, 60쪽.

88) 권덕영 외, 2015, 347쪽, “公諱孝斌…公參是軍事友人太原王守義遇疫於海東…”

서 674년 나당전쟁이 소강상태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질병은 그 자체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군사적으로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쟁이나 재난으로 인해 많은 희생이 발생한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지만,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희생 못지않게 의학 분야의 변화와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⁸⁹⁾ 의학사 측면에서는 이 시기를 고대의학과 중세의학의 분기점으로 이해하기도 하는 만큼⁹⁰⁾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임은 분명해 보인다. 군사사 시각에서 질병사와 의학사 영역과 연계하여 학제 간 고찰이 필요한 이유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이처럼 삼국통일전쟁과 관련하여 군사사 영역의 고찰이 지니는 의의와 한계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관련 분야 연구의 심화와 필요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삼국통일전쟁에 대한 군사사적 고찰이 단순한 전쟁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전쟁을 행하던 7 세기의 사회에 대한 시대상과 역사상을 명확히 제시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와 연구의 당위성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우리 역사에서 군사적 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고대사의 한 시기, 즉 7세기 후반 삼국의 격변과 삼국통일전쟁이 지니는 군사사적 활동의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일반적 시각으로서 군사나 군사사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군사사적 고찰을 통한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면,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서 삼국통일전쟁에 대한 군사사적 고찰의 의미와 이해 방향을 제시하였다.

군사사를 통한 역사의 이해에서는 군사사 연구가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표면적으로는 전투나 전쟁의 전개 양상을 고찰 대상으로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전투나 전쟁을 거치며 새롭게 생성되던 지배 질서의 변동이나 사회 의식의 변화 등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여 제시함으로써 당대의 시대상과 역사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삼국통일전쟁에 대한 군사사적 연구의 의의에서는 여섯 개의 측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로 신라의 국가적 역량, 구체적으로는 군사적 역량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둘째로 새로운 군사 전략, 전술의 등장과 관방 체계의 운용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 셋째로 나당전쟁 당시의 전역이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 전선과 춘천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 전선이었음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 넷째로 노 등 고위력 병기의 등장과 운용이 확인된다는 점, 다섯째로 나당전쟁에 있어 여제 유민의 역할이 보조적 수준을 넘어 능동적이고 주체

89) 신라가 효소왕 원년(692) 의학(醫學)을 설치한 것은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90) 여인석 외 지음, 2018, 앞의 책, 73-74쪽.

적이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삼국통일 후 신라가 북쪽 경계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북쪽 영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일부 분야에서 연구가 미진한 점도 드러났지만, 앞으로 진행될 연구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게도 한다.

결론적으로 군사사 연구는 단순히 전쟁에 관한 서술이 아니라 전쟁을 행하던 사회의 시대상과 역사상을 명확히 제시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와 연구의 당위성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투고일: 2024.10.18, 심사개시일: 2024.11.29, 게재확정일: 2024.12.09.
--

【참고문헌】

- 강봉룡, 1997, 「新羅下代 浪江鎭의 設置와 運營」, 『韓國古代史研究』 11.
 國防軍史研究所, 1994, 『韓民族戰爭通史』, 古代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삼국시대 한강유역의 관방체제와 전쟁』.
 권덕영, 1997, 『古代韓中外交史』, 一潮閣.
 권덕영 외, 2015,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권창혁, 2023, 「신라 한산주의 관방체제 정비와 주장성의 위상」, 『삼국시대 한강유역의 관방체제와 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기경량, 2019, 「‘일통삼한 의식’과 표상으로서의 ‘삼한’」, 『역사비평』128.
 김강훈, 2022, 『고구려부흥운동 연구』, 학연문화사.
 김병희, 2021, 「新羅-唐 戰爭史 研究」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수태, 2014,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신라사학보』32.
 김영수, 2006, 『역사를 훑친 첩자』, 김영사.
 김영하, 1988, 「신라의 삼국통일을 보는 시각」, 『韓國古代史論』, 한길사.
 김영하, 1999, 「新羅의 百濟統合戰爭과 體制 變化」, 『韓國古代史研究』16.
 김영하, 2007, 『新羅中代社會研究』, 일지사.
 김종복, 2010, 「백제와 고구려고지에 대한 당의 지배 양상」, 『역사와 현실』78.
 김진한, 2014, 「『답설인귀서』에 보이는 신라당 밀약 기사의 사료적 검토」, 『인문논총』 71-1.
 노중국, 1987, 「法興王代の 國家體制 強化」,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경상북도.
 노태돈, 2006, 「나당전쟁과 나일 관계」,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노태돈, 2009, 『삼국 통일 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노태돈, 2011, 「7세기의 전쟁을 둘러싼 논의」, 『한국사연구』154.
 류한수, 2008, 「클레이오와 아테나의 만남-영미권의 군사사 연구 동향과 국내 서양사학계의 군사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서양사론』98.
 박종욱, 2022, 「7세기 중엽 국제정세의 변화와 백제 의자왕대 한강유역 공격」, 『한국고대사탐구』 42.
 拜根興, 2002, 「七世紀 中葉 羅唐關係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영교, 2002, 「羅唐戰爭期 唐兵法의 導入과 그 意義」, 『한국사연구』116.
 서영교, 2006, 『羅唐戰爭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송영대, 2015, 「6~7세기 신라의 전략·전술 입안과 활용」, 『한국사연구』107.
 스태크(J.C.A. Stagg) 저, 임지현·김원수 외 역, 1992, 「군사사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역사학: 쟁점과 전망』, 역사비평사.
 신범규, 2024, 「신라 중고기 軍事制度의 정비와 운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은이, 2018, 「보덕국의 탄생과 그 의미」, 『대구사학』132.

- 양투안 앙리 조미니 저, 이내주 역, 1999, 『전쟁술』, 책세상.
- 앨빈 토플러 저, 이규행 감역, 1994, 『전쟁과 反戰爭』, 한국경제신문사.
- 여인석 외, 2018, 『한국의학사』, 역사공간.
- 역사학회, 2006,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 오준호, 2014, 「軍陣醫書『行軍方便便方』의 구성과 내용」,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22권 2호.
- 온창일, 2013, 『한민족전쟁사』, 지문당.
- 월 듀런트·아리엘 듀런트 공저, 안인희 역, 2014, 『월 듀런트의 역사의 교훈』, 을유문화사.
- 유재춘, 2010, 「역사상 춘천의 군사적 거점과 가치」, 『군사연구』130.
- 윤경진, 2016, 「671년 「答薛仁貴書」의 ‘平壤已南 百濟土地’에 대한 재해석 : 백제의 영토의식과 溟河의 새로운 이해」, 『역사문화연구』60.
- 윤선태, 2007, 「통일신라의 발명과 근대역사학의 성립」, 『신라문화』29.
- 윤성호, 2019, 「신라 진평왕대 대고구려 전투의 의미」, 『역사와 경계』110.
- 윤진석, 2020, 「648년 당태종의 ‘평양이남 백제토지’ 발언의 해석과 효력 재검토」, 『한국고대사탐구』34.
- 이기동, 1976, 「신라 하대의 패강진-고려왕조의 성립과 관련하여」, 『한국학보』4.
- 이기동, 1984,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 李基白·李基東 共著, 1982, 『韓國史講座』I [古代篇], 一潮閣.
- 이기천, 2020, 「당의 입장에서 본 신라의 통일」, 『역사비평』130.
- 李丙燾, 1977,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史.
- 이문기, 1997,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 이상훈, 2016, 「나당전쟁기 신라의 대규모 축성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탐구』23.
- 이상훈, 2018, 「삼국통일기 신라군의 행군편성 구조」, 『한국고대사탐구』30.
- 이상훈, 2012, 『나당전쟁연구』, 주류성.
- 이상훈, 2015, 『신라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푸른역사.
- 이영수, 2023, 「羅唐戰爭期 新羅 牛首州의 군사조직 강화와 운용」, 『한국고대사연구』110.
- 이재준, 2019, 「군사적 관점에서 본 주류성과 백강의 위치」, 『한국고대사탐구』31.
- 이재환, 2019, 「7세기 중-후반 동북아시아의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역사비평』128.
- 이재준, 2023, 「백제 기벌포 위치비정에 관하여」, 『북악사론』18.
- 이정빈, 2023, 「삼국시대 한강사 연구와 군사사의 과제」, 『삼국시대 한강유역의 관방체계와 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이현숙, 2003, 「몸, 질병, 권력: 통일전쟁기 신라의 군진의학」, 『역사와 문화』6.
- 임기환, 2006,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 장창은, 2014, 『고구려 남방 진출사』, 景仁文化社.
- 정덕기, 2018, 「6~7세기 신라 병부의 조직정비와 병마행정의 변화」, 『한국고대사탐구』30.

- 정성권, 2023, 「항마촉지인 불상의 신라 등장시기와 배경」, 『신라사학보』59.
- 최희준, 2020, 「7세기 후반 신라의 백제·고구려 유이민 정책」, 『신라사학보』50.
- 클라우제비츠 저, 김홍철 역, 1990, 『전쟁론』, 삼성출판사.
- 한준수, 2015, 「신라 통일기 新三千幢의 설치와 운용」, 『한국고대사연구』78.
- 한준수, 2018, 「신라 통일기 삼무당의 설치와 여제 유민」, 『한국고대사연구』30.
- 한준수, 2021, 「신라 문무왕대 삼국 통일의 완성과 水軍의 활약」, 『新羅文化』50,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 韓昇, 2003, 「唐朝對百濟的戰爭: 背景與性質」, 『百濟文化』32,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植田喜兵成智, 2022, 『新羅·唐關係と百濟·高句麗遺民』, 山川出版社.

【Abstract】

The investigation of the military history and its historical implications of the war of Unification Three Kingdoms

Han, Jun-su
(Kookmin University)

This study outlines the significance of the military historical ancient temple of the upheaval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unification war of the Three Kingdoms in the late 7th century. In Chapter II, we looked at the general view of military and military history, and in Chapter III, we looked at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military history by military historical considerations, and in Chapter 3, we looked at the meaning of military historical considerations of the Three Kingdoms War.

As the winner of the Three Kingdoms Unification War and the Silla-Tang War, he examined Silla's national power, Silla's army and naval forces, strategies and tactics, and proved that Silla was firmly established as the winner of history. In addition, the limitations of current military history research were also mentioned to give a balanced view. Through the study, we hope that we will not only expand our understanding of military history, but als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Three Kingdoms War and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It is often said that human history is the history of war. Korean history is no exception, and numerous war-related records handed down in "The Three Kingdoms' History" prove this. In this respect, East Asia in the 7th century was a century of war, and we were at the center of history as parties to such wars. These include the Goguryeo-Sui War, the Goguryeo-Tang War, the Unification War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Nadang War. The meaning of such a war has been examined early on, and historical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have been presented.

Although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Three Kingdoms Unification War, which is the biggest turning point in Korean ancient history, has been suggested, it has become a common view that not only historical scholars but also the general public sympathize with it.

However, apart from such historical perceptions, the process of consideration remains unsatisfactory. This is because, despite the fact that the War of the Three Kingdoms was a war comparable to the modern world war, there is a lack of direct access to military

history centered on the history of the war. Therefore, in order to properly recognize the history of the three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ast Asian world in the 7th century, precise military historical considerations must be conducted. This can be said to be the fundamental significance of military historical considerations.

Keywords : The war of Unification Three Kingdoms, Silla-Tang Alliance,
Silla-Tang War, Goguryeo, Baekje